

베를린에서는 처음으로 폐제의 유럽 젊은이 모임이 열렸습니다. 엄청난 다양성으로 특징지어지는 도시 베를린은 미래를 향하고 있지만 아픈 과거의 기억도 잘 간직하면서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낙망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 주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도시에서 소수로서 복음을 살아가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많은 교파에 속해 있기에 공동의 증거와 에큐메니칼 활동은 선택이 아니라 꼭 필요한 것입니다. 많은 본당과 개교회는 가난한 사람들이 환영받는 인류의 연대의 장소입니다. 폐제의 형제들이 베를린을 처음 방문한 것은 1955년입니다. 1961년 도시를 동서로 나누는 장벽이 세워지자 형제들은 동베를린을 더 많이 찾아왔습니다. 1980년대에는 많은 기도 모임이 만들어졌습니다. 로제 수사는 1986년 “신뢰의 순례”의 일환으로 동베를린에 왔습니다. 가톨릭과 개신교의 큰 교회 두 군데에서 동시에 개최된 기도 모임을 위해 공산당 정부의 허락을 받아야 했고 여기에는 동부 독일에서 6천 명의 젊은이들이 참가했습니다. 서방에서는 아무도 참가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허락되었습니다. 그 시대는 지났고 베를린은 이제 세계 곳곳에서 장벽을 넘어 신뢰를 퍼뜨리기 위해 노력하는 모든 이들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폐제의 편지

KO

2012년 편지

새로운 연대를 향해

가족과 공동체, 도시와 마을 안에서, 국가와 대륙 사이 등 모든 단계에서 사람들 사이의 새 연대가 꽃피어나게 하기 위하여 담대한 결심들이 필요합니다.¹

인류와 지구에 드러진 여러 위험과 고통 앞에서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포기하지 않으려 합니다.²

그렇지만 인간의 찬란한 희망은 끊임없이 실망과 환멸로 인해 위협받고 있습니다. 점점 가중되는 경제적 어려움과 때로 우리를 짓누르는 사회의 복잡

함, 자연재해 앞에서의 무력함 등, 이 모든 것이 희망의 싹이 자라나는 것을 방해합니다.³

새로운 연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신뢰의 원천을 더 많이 찾아내어야 할 때가 오지 않았습니까? 어떤 인간도 어떤 사회도 신뢰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신뢰가 배반당했을 때는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신뢰는 눈 먼 순진함이 아니고 값싼 말도 아니며 선택에서 오는 것이고 내적 투쟁의 열매로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다시 걱정에서 신뢰로 나아가도록 부름받았습니다.

1 인류의 연대는 늘 필요한 것이었지만 끊임없이 새로와져야 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표현함으로써 꽃피워져야 합니다. 오늘날, 젊은 세대가 지상의 자원을 더 공정하게 나누고 대륙 사이에 그리고 각 나라 안에서 부의 더 공평한 분배를 준비하는 것이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더 절실히 필요합니다.

2 새로운 연대를 향한 도약은 가능합니다. 그것은 세계사가 미리 결정된 것이 아니라는 확신에서 자양분을 얻습니다. 무엇보다도 다음의 예를 기억하십시오. 2차 대전 직후 극소수의 정치지도자들은 모든 예상을 뛰어넘어 화해를 믿었고 담대한 연대적인 유럽 건설을 시작했습니다. 1986년 평화적인 혁명이 필리핀의 상황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었습니다. 폴란드의 대규모 민중운동이었던 자유노조가 폭력없이 유럽 여러 나라에 자유의 길을 준비했습니다.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것은 몇 해 전까지만 하더라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같은 시기에 중남미의 여러 나라가 민주화의 길을 걸으면서 일찍이 볼 수 없었던 경제 개발이 시작했고 머지않아 가장 가난한 이들이 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인종차별정책이 종식되고 남슨 만델라가 내민 손으로 기대조차 할 수 없었던 화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최근에 북아일랜드와 바스크 지방에서 폭력이 종식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인간들 사이의 신뢰

신뢰의 길을 여는 것은 긴급한 요구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커뮤니케이션이 점점 더 쉬워졌지만 우리 인간 사회는 단절되고 조각난 채로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장벽은 민족과 대륙 사이에만이 아니라 우리 가까이에도 있고, 인간 마음 속에까지 존재합니다. 서로 다른 민족들 사이의 여러 편견을 생각해 봅시다. 바로 곁에 살면서도 흔히 너무나 멀게만 느껴지는 이민자들을 생각해 봅시다. 종교들 사이에도 상호

3 세계 경제의 엄청난 변동들은 우리에게 많은 질문을 던집니다. 권력의 지정학적 균형이 변하고 있고 어제의 안전이 오늘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우리 삶을 위해 하는 선택들에 대해 더 성찰할 근거가 되겠습니까?

무지가 남아 있고, 그리스도인들 스스로 수많은 교파로 갈라진 채로 있습니다.

세계의 평화는 마음 속에서 시작됩니다.

신뢰를 싹틔우기 위해서, 때로는 빈 손으로 다른 사람들을 찾아가 그들의 얘기를 들어주고 우리와 달리 생각하는 사람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면 벌써 막혔던 상황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가장 약한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더 관심을 기울이도록 합시다. 가장 가난한 사람들을 향한 관심은 사회적인 행동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사실 그것은 더 깊은 의미에서 모든 이들을 향한 개방적인 태도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 역시 우리를 필요로 하는 가난한 사람들입니다.⁴

가난과 불의 앞에서 어떤 이들은 반발하고, 심지어는 무모한 폭력의 유혹을 받기도 합니다.

폭력은 사회를 변화시킬 수단이 될 수 없습니다.⁵ 그렇지만 분노를 표현하는 젊은이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 본질적인 이유를 이해하도록 노력합니다.⁶

새로운 연대를 향한 활력은 뿌리깊은 확신에서 자라납니다. 나눔의 필요성이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⁷ 이것은 서로 다른 종교의 신자들, 그리고 신자와 비신자들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절대적인 요청입니다.

하느님께 대한 신뢰

인간들 사이의 연대는 하느님과 연계 안에서 굳건한 토대를 가지는 것이 사실이지만, 하느님께 대한 신뢰는 흔히 의문시 됩니다. 많은 신자들은 일터나 학교, 때로는 가정에서 그런 부정적인 경험을 하게 됩니다.

- 빈곤은 물질 생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친구가 없는 것, 삶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는 것, 시나 음악, 예술처럼 삶을 풍부하게 해 주고 창조의 아름다움으로 우리를 이끌어주는 모든 것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도 가난입니다.
-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기 직전에 동부 독일에서 가두 시위를 조직한 사람들은 참가자 모두에게 촛불을 켜서 들도록 했습니다. 한 손으로는 초를 잡고 다른 손으로는 촛불이 꺼지지 않도록 바람을 막아야 했기에 폭력적인 행동을 할 수 없게 만든 것입니다.
- 마드리드에서 인디그나도스(분노자들) 운동에 참가한 스페인 젊은이들이 나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업 상태이고 가정과 기본적인 인권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혼돈과 분노를 야기한 것은 불공정한 법 경제 사회 제도와 합당한 주거와 물리적 정신적 보전 등, 헌법에 있는 시민들의 권리를 보장하지 못하는 잘못된 민주주의입니다. 폐제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물으셨지요? 우리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이미 하고 계신대로 하시면서, 우리에게 어떻게 내적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십시오. 우리는 여러분들의 기도와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든 애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와 같은 관심을 가진 다른 젊은이들과 정보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실 수도 있겠습니다.”
- 예를 들어 서방국가들이 아프리카에 너그럽게 인도주의적 지원을 하는 것 이상으로 이 대륙에 정의를 세울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아이티는, 국민들이 대단한 존엄성과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역사상 가장 학대당하고 수모당한 나라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신을 인격적으로 사랑하시는 하느님을 믿기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아주 솔직히 “내게 믿음이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 라고 자문하는 사람 또한 적지 않습니다.

오늘날 신앙은 모험처럼, 신뢰의 모험처럼 보입니다.

그것은 일차적으로 어떤 진리에 대한 신봉이 아니라 하느님과 관계입니다.⁸ 신앙은 우리로 하여금 하느님의 빛을 향해 돌아서도록 요구합니다.

하느님께 대한 신앙은 결코 노예처럼 만들거나 개인적인 성취를 짓누르지 않으며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⁹ 곧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롭게 하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사람들을 섬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자유롭게 합니다.¹⁰

하느님께 대한 신뢰가 자랄수록 더욱 더 우리 마음은 온 세상 모든 문화 안에서 인간적인 모든 것들 향해 드넓어집니다. 그리고 인간의 고통을 들어주고 사회를 발전시키는 과학과 기술에 대해서도 받아들이는 자세를 가지게 됩니다.

하느님은 해와 같아서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기에는 너무나 눈부십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하느님의 빛을 드러나게 해 주십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 우리는 “절대적으로 초월적인 하느님께서 우리 인간의 실재 안으로 들어오셔서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는 신뢰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신앙에서 각별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인격, 그분과의 살아있는 관계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온전히 다 이해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친교의 그리스도

우리 모두는 순례자이며 진리를 찾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진리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이신 그분에게 사로잡힌다는 뜻이며 그분이 완전히 드러나시는 것을 향해 나아간다는 뜻입니다.

- 교종 베네딕도 16세는 하느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믿음의 기초라는 사실을 여러 차례에 걸쳐 강조했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본래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윤리적인 결정이나 대단한 이상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삶에 새로운 전망과 비전을 가져다 주고 그를 통해 결정적인 방향을 제시해주는 한 사건, 한 인물과의 만남이다.” (베네딕도 16세, *Deus caritas est* 하느님은 사랑입니다, 서문 1)
- 우리의 믿음은 때로는 회의와 신뢰 사이의 내적 투쟁을 거치면서 자기 투사나 두려움으로부터 끊임없이 정화되어야 합니다. 우리 지성은 이런 투쟁에도 관여하고 무조건 반복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은 교회의 전통에 준거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신앙의 신뢰를 복돋우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참여와 확신이 그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 “모든 이에게 자유로우면서도 나는 모든 이의 종이 되었다.” (고린도 전서 9:19)는 바울로 사도의 말씀을 주석하면서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의 주인이며 아무에게도 예속되지 않은 자유로운 인간이다.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을 섬기는 종이며 누구에게나 예속된다.” (루터,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관하여).

너무나 새롭고 놀라운 것은 예수께서 지극히 단순한 삶을 통해서 하느님의 빛을 전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느님의 생명이 그분을 더욱 인간적으로 만드셨습니다.¹¹ 인간 삶의 단순함 속에서 자신을 온전히 드러내심으로써 하느님은 인류에 대한 당신의 신뢰를 새로이 하였고 우리가 인간을 믿을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나 우리 자신에 대해 더 이상 절망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폭력적인 죽음을 폭력으로 응대하지 않고 받아들임으로써 예수께서는 미움만이 있는 곳에 하느님의 사랑을 가져다 주셨습니다.¹² 십자가 위에서 그분은 숙명주의와 수동적인 태도를 거부하셨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그분은 사랑하셨고 부조리하고 이해할 수 없는 고통에도 불구하고 하느님께서 악보다 더 크시고 죽음이 결코 지배할 수 없다는 신뢰를 간직하셨습니다. 역설적으로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당하신 고통은 무한한 그분 사랑의 징표가 되었습니다.¹³

그리고 하느님은 그분을 부활시키셨습니다. 그리스도는 과거에만 속하지 않고 매일 새로운 오늘 우리를 위해 여기 계십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는 성령을 우리에게 전해 주십니다.

우리 믿음의 중심은, 우리 가운데 계시며 우리 각자와 인격적인 유대를 가지신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 11 예수는 대단한 고행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많은 기적을 행하셨고 무엇보다 많은 이를 낫게 하셨지만, 자신이 하느님께서로부터 파견된 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할 그 결정적인 순간, 곧 십자가 위에서는 하느님의 침묵이 있었습니다. 이 침묵은 고통받는 모든 이들과 함께 하시기로 그분이 받아들인 침묵이었습니다. 제자들은 그분이 가난한 메시아라는 사실을 이해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예수께서 당시의 사회 혹은 정치 상황을 바꾸실 것으로 기대했지만, 그분이 악을 그 뿌리에서부터 제거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 12 “그리스도는 모욕을 당하시면서도 모욕으로 갚지 않으셨으며 고통을 당하시면서도 위협하지 않으시고 정의대로 심판하시는 분에게 모든 것을 다 맡기셨습니다.” (베드로 전서 2,23)
- 13 무고한 이들의 이해할 수 없는 고통 앞에서 우리는 흔히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인류의 역사를 통해 계속된 “하느님은 어디 계시는가?”라는 물음과 의침은 우리 마음을 관통합니다. 우리는 여기에 즉시 답하진 못해도, 죽음을 이기셨고 우리가 고통받을 때 동행하시는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드릴 수 있습니다.

니다. 그분을 바라볼 때 경탄이 솟아나고 우리 존재에 대한 더 깊은 이해가 가능해집니다.

우리가 기도 안에서 그분의 빛을 바라볼 때 그 빛은 우리 내면으로 조금씩 스며듭니다. 그리스도의 신비가 우리 삶의 신비가 됩니다. 우리 내면의 슬한 모순과 두려움이 아마도 완전히 사라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 걱정하는 것을 꿰뚫고 들어 오셔서 내면의 어둠을 밝혀 주십니다.¹⁴

기도는 우리를 하느님께로 또 동시에 세상으로 이끌어 줍니다.

부활절 새벽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만난 막달라 마리아처럼 우리는 이 기쁜 소식을 다른 이들과 나누도록 부름받았습니다.¹⁵

교회의 사명은 세상의 모든 언어와 민족의 남녀 노소를 그리스도의 평화 안에 불러 모으는 것입니다. 교회는 복음이 말하는 것이 참되다는 것의 징표이며, 온전히 성령에 힘입어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친교의 그리스도”를 가까이 보여 줍니다.¹⁶

“교회가 끊임없이 경청하고¹⁷ 치유하고 화해시킬 때, 그 자신의 가장 찬란한 모습인 사랑과 자비와 위로의 친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그대로 드러냅니다. 결코 거리감을 두지 않고 결코 방어적이지 않으면서 모든 엄격함에서 벗어나 교회는 우리 인간 마음 속까지 신앙의 겸손한 신뢰를 비추어 줄 수 있습니다.”¹⁸

- 14 하느님의 빛을 바라보는 것인 기도는 동시에 경청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건네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시는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는 때로 우리에게 가난한 분으로 다가와, 사랑받기를 기다리며 우리에게 “나는 문 앞에 서서 두드린다” (묵시록 3,20)라고 말씀하십니다.
- 15 요한 20,11-18 참조
- 16 “친교의 그리스도”라는 말은 로제 수사의 표현입니다. 베를린 신학자 디트리히 본회퍼는 21살의 젊은 나이에 이미 “공동체로 계시는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천착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통해 인류는 진정으로 하느님과 친교에 다시 받아들여졌다.”라고 씁니다. (본회퍼, Sanctorum communio).
- 17 교회 어디서나 남성이나 여성이 헌신적으로 경청의 직무(사역)를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서품 혹은 안수 받은 성직자들의 직무에 보완적인 이런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평신도들이 있습니다.
- 18 로제 수사, “만사에 마음의 평화를” (한국어판, 로제 수사와 함께 하는 하루 한 생각, 생활성서사)

범세계적 신뢰의 순례의 다가오는 단계들

여러 나라의 젊은이들과 함께 알로이스 수사는 3월 2일 제네바의 세계교회협의회(WCC)를 방문합니다.

제3회 아프리카 국제 젊은이 모임이 르완다의 키갈리에서 2012년 11월 14일부터 18일까지 열립니다.

제 35회 젊은이들의 유럽 모임이 2012년 12월 28일부터 2013년 1월 2일까지 로마에서 열립니다.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 바르톨로메오스 1세와 이스탄불의 그리스도인들과 더불어 주의 공현 대축일(주현절)을 지내기 위해 2013년 1월 4일부터 6일까지 알로이스 수사는 공동체의 형제들과 여러 대륙의 젊은이들과 함께 이스탄불에 갑니다.

“땅의 소금”이 되기

친교의 그리스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남들로부터 동떨어져 고립된 사회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신뢰와 평화의 누룩으로 인류에 봉사하도록 우리를 파견하십니다.¹⁹ 그리스도인들 사이의 가시적인 친교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인류 안에서 “너희는 땅의 소금이다”라는 징표입니다.²⁰

그리스도는 십자가와 부활로서 모든 인간들 사이에 새로운 연대를 세워 주셨습니다. 그분 안에서 인류가 서로 대립하는 무리들로 나뉘어져 있는 것은 이미 극복되었고 그분 안에서 모두는 하나의 유일한 가족을 이룹니다.²¹ 하느님과 화해는 인간들 사이의 화해를 포함합니다.²²

¹⁹ 이 섬김(봉사)은 사회를 비인간화하는 모든 것과는 반대의 길을 택하지만, 무엇보다도 항상 각 시기 세계의 다양한 문화에 대한 존중과 건설적인 대화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누룩은 반죽에 넣어야만, 그리고 반죽과 구별이 안될 만큼 뒤섞여야만 비로소 힘을 발휘합니다.” (성 요한 크리소스톰, 마태 복음 설교집 46)

²⁰ 마태 5,13

²¹ 그리스도는 “내가 이 세상을 떠나 높이 들리게 될 때에는 모든 사람을 이끌어 나에게 모게 할 것이다.” (요한 12,32)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로는 “유대인이나 그리스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갈라 3,28)라고 역설합니다.

²² 에페소서 2,14-18 참조.

하지만 소금이 만일 제 맛을 잃어버린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흔히 그리스도의 이 메시지를 가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분열된 채 남아 있으면서 어떻게 평화를 전파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사랑과 평화의 이 메시지를 되살려야 하는 역사의 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 오해에서 벗어나 맨 처음의 단순함으로 빛을 발하도록 우리의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까?

아무것도 강요하지 않으면서, 우리의 믿음을 공유하지는 않지만 온 마음으로 진리를 찾는 이들과 더불어 걸어가갈 수 있겠습니까?²³

우리가 새로운 연대를 만들어 내고 신뢰의 길을 열어가려고 모색하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여러 시련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그 시련에서 헤어나지 못할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개인적인 시련과 다른 사람들이 당하는 그것에 대한 우리의 응답은, 항상 더 많이 사랑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알로이스 수사 *f. Alois*

²³ 예를 들면, 내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새 삶의 방향을 제시해주는 것은 무엇인가? 어떤 목적이 내 삶을 일관성 있게 만들어 주는가? 등의 질문에 대해서 나눌 수 있겠습니다.

2015년 새 연대를 위한 대회

2012년: 인간들 사이에 신뢰의 길을 열어가기

2013년: 하느님께 대한 신뢰의 샘터를 드러내기

2014년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모든 이들의 가시적인 친교를 찾기

2015년 땅의 소금이 되기

그리고 이 모색을 정리하고 새로운 발돋움을 해나가기 위해서

앞으로 3년 반 동안 우리는 “신뢰의 순례”를 통해 새로운 연대를 향한 이 편지의 요청을 실천하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신앙인이든 비신앙인이든 평화의 순례자, 진리의 순례자인 모든 이들을 연결해 줄 수 있는 새로운 연대

모든 대륙의 젊은이들이 열정을 쏟고 자신들의 열망과 비전 그리고 경험을 모을 수 있게 하는 3년 반.

2015년 8월

폐제에서 새 연대를 위한 대회가 열립니다.

폐제공동체 설립 75주년
로제 수사 탄생 100주년

이 대회의 준비는 각 대륙별로 열리는 모임을 통해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귀기울이면서 이루어집니다.